

# 고등교육 정책소식

대학교육

뉴스레이더

Higher Education 2011\_09+10

## |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기준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이 확정('11.6.15)됨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제도가 모두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캠퍼스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여 교육-R&D-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물리적·화학적·조직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

산업단지 캠퍼스는 일반 캠퍼스와 달리 교사·교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산업단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캠퍼스 제도이다.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 인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리적 근접성) 산업단지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광역경제권내의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며, (산업현장 친화적 교원인사체제 구축) 대학이 교수 채용시 산업체 경력 환산 및 연구실적을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는 교원인사체제를 구비하여야 하고, (실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관련, 현장실습과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함

교과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년부터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를 득하여야만 당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경부의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도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1.7월중에 하반기 정기심사를 거쳐, 여건이 마련된 대학은 '11년 2학기부터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기심사에서는 한밭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군산대 등 5~6개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당해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내에서 기업과 대학의 보다 일체화된 협력사례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대학정보공시, '11년 예산 및 '10년 입학전형료 공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김영길)는 2011년 6월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2011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입학전형료 현황 등을 공시한다고 밝히고, 4년제 일반대학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 및 사립대학의 예산현황은 대학정보공시의 항목관리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하고, 이를 각 대학이 최종 확인하였다.

### • 2011년도 대학예산 현황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11년 학교당 평균 예산은 1,643억 원으로 전년(1,541억 원) 대비 6.6%가 증가하였다. 전년도 대비 회계별 증가율을 살펴

보면, 국·공립대학은 발전기금회계(17.1%, 547억 원), 산학협력단회계(10.4%, 2,345억 원), 일반회계(7.5%, 1,691억 원)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법인회계(28.4%, 6,097.4억 원), 산학협력단회계(9.8%, 3,542억 원), 교비회계(5.0%, 7,7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정부의 '11년 대학연구비 지원(38,133억 원)이 전년(30,154억 원)대비 큰 폭으로 증가(26.4%, 7,979억 원)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11년도 대학의 예산을 설립유형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2,533억 원으로 전년(2,459억 원) 대비 3.0%(74억 원) 증가하였으며,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1,486억 원으로 전년(1,382억 원) 대비 7.6% 증가하였다.

수도권 국·공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4,239억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236억 원)에 비해 약 1.9배 높았으며, 수도권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2,130억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033억 원)에 비해 약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회계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회계 36.3%, 일반회계 32.4%, 기성회계 25.9%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립대학은 교비회계가 70.4%, 산학협력단회계 17.3%, 법인회계 12.2% 순으로 분석되었다.

#### •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010 회계연도 결산기준)

입학전형료 공시자료 중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10년도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09년 1,9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대비 응시인원 증가(468천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은 17.8% 증가하였고, 사립대학은 18.6%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대학은 16.6%, 비수도권 대학은 23.5% 증가하였다. '10년도 전체 입학전형료의 91.2%를 차지하는 학부(수시+정시+편입)의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전년도(약 53,800원) 대비 2.8%(약 1,500원) 증가된 약 55,300원이었으며, 국·공립대학(약 36,900원)이 사립대학(약 58,500원)에 비해 낮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약 38,700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약 66,600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입학전형료 지출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입학전형료 수입의 99.6%('09년 98.2%)를 입학전형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6.8%, 사립대학이 101.2%를 지출하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 93.8%,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113.7%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전형료에 대한 대학의 자발적 인하, 단계별 전형료 환불과 아울러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적정화 등을 유도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2011. 6월 기준)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선취업·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대학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자체 전형 계획에 따라 정원내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1.7.6~26)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 **| 교과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이 신청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내의 한국 캠퍼스(SUNY Korea) 설립을 최종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개교를 위해 본격적인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이 신청('10.12.10)한 한국캠퍼스 설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이종재명예교수)」를 통해 서류 및 면담심사를 거쳐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教員) 등 주요 심사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본교와 뉴욕주립대본부(알바니)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본교 총장들로부터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약속을 확인한 후,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심의(7.13)를 거쳐 최종 승인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총장 Samuel L.Stanley)은 '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국내 최초로 유치되는 미국 유명대학으로 이번

에 개교할 한국캠퍼스는 컴퓨터과학 및 기술과사회 2개과의 석·박사과정 대학원 대학(정원 407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은 “벤자민 리”라는 이름으로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한인 과학자로 알려진 재미 핵물리학자 고(故) 이휘소 박사가 교수로 근무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운영은 국내 글로벌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유학수지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진형 고등교육 모델 보급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심의 |

지난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이하 “위원회”)는 7월 27일(수) 제3차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각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심의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대학>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문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 유도한다. 또한,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

학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 <사립대학>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 지속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학교폐쇄와 법인해산도 추진한다.

대학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의 결산보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국·사립대학 공통>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1. 7. 21)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가 도입되며,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3-4학기제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대출제한대학 선정평가 지표

- 절대평가: 취업률, 재학생총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4개 지표)

- 상대평가: 취업률, 재학생총원율, 장학금지급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은 산

학협력수익률을 포함하여 9개 지표)

### | 2011년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지난 5월에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8.1(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11개 부처·청 등이 합동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 11개 기관

동 시행계획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의 비전을 위해 '초·중등생 - 대학(원)생 - 박사 후 과정생 - 출연(연)·기업 등 재직연구인력 - 퇴직 과학기술인'에 이르는 과학기술인력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육성·지원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 상의 5대 영역별 15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총 97개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해 총 2조 5,360억원(정부 2조 4,832억원, 민간 528억원)을 투입하게된다.

- 이중 교과부는 74개의 세부사업 수행에 2조 3,035억원(총 투입액의 90.8%)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① 초중등, ② 대학(원), ③ 출연(연), ④ 기업, ⑤ 인프라

##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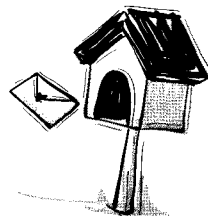
|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co.kr](mailto:weeklynews@kcue.co.kr)

|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회원대학 소식

대학교육

뉴스레이더

Higher Education 2011\_09+10

## |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의 명지대-LG연암문고가 교수신문과 교육과학기술부국가브랜드위원회가 등으로 주관하는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13편에 최종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한국대학이 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찾아 이들의 지적·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여 한국사회의 문화 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대학의 문화유산, 한국의 미래다'를 올해 특별기획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4년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진정한 학문탐구의 산물 또는 대표적인 대학의 가치와 자산 2~3개를 추천받은 결과 모두 44개 대학교에서 79점의 유산을 제출받았다. 이후 선정위원회는 기획의도 부합, 유산의 역사성, 사회적 기여 가능성, 잠재성, 세계적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명지대-LG연암문고를 포함 한 13편의 유산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유산'에 최종 선정했다. 교수신문은 명지대학교의 선정 이유로 "명지대-LG연암문고는 문화방송과 LG그룹의 '고서 찾기 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한국학유산"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번 명지대-LG연암문고의 '한국대표 대학 유산 선정'을 계기로 명지대학교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소장 정문수)는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연구 성과인 해항도시간 문화교섭의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시청 로비 전시관에서 해외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주제를 '미래로 가는 회상-한일교류와 재부산 일본인의 초상'으로 정하고 한일교류와 재부산인들의 역사 사진 50여점과 부산 아미동 소재 일본인 묘비석 2기, 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일본을 응원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공생을 희망하는 부산봉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림과 메시지 30여점을 전시하였다.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정문수 소장은 "이번 해외특별전시회는 재부산일본인과 함께 축적되어 온 일본과의 문화교류 양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기회이자 초국경 해항도시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특별전시회는 2009년 9월 중국 칭다오에서 처음 개최한 데 이어 2010년 5월 2회 전시회를 일본 도쿠시마, 중국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시 개최하는 등 매년 동아시아 해항도시가 지닌 놀랍고 다양한 문화교섭 능력과 다문화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왔다.

### |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추수관리협의체를 발족했다. 조선대학교 입학처(처장 한길영)는 기초교육대학, 교수학 습개발팀, 국제협력팀, 학생지원팀, 취업경력개발팀, 주제정보봉사팀 등 교내 6개 행정부서 장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제 추수관리협의체 발족식을 6월 29 일 오전 11시 입학처장실에서 가졌다. 입학사정관제 선발과 교육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부서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학생생활지원 체계화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결성된 이 협의체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추수관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를 통한 대학생활 지원 체계화는 물론 입학사정관전형 입학 생들에 대한 추수관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현 황 설명과 추수관리협의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에 이어 2012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학습팀 운영 및 학습법 특강, 국제화 프로그램, CU-SP 및 문화 마일리지, 캠프 및 인·적성 검사, 독서토론클럽 등 2011학년도 제2학기에 진행될 부서 사업에 대해 설 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광자)는 7월 4일(월) 오후 3시 30분, 본교 행정관 중회의실에서 서울특별 시 서울의료원(원장 유병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

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여대와 서울의료원의 상호 발 전과 의료분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양기관은 관련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술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하였다.

본 협약을 통하여 서울여대 재학생들은 병원 실 습 및 현장 교육을 지원받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시설·장비·학술 자료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강좌 개설 및 학술행 사에서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이광자 총장과 서울의료원 유병욱 원장, 서울여자대학교 박경원 교 무처장과 이미식 기획정보처장, 정동선 사무처장, 류기현 산학협력단장, 서울의료원 최진호 행정부원 장과 이금영간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 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는 7월 8일 오후 5시 부경대 대연캠퍼스 비스타호텔 3층 연회장에 서 제4회 한·미학생회의의 막을 올렸다. 이 행사는 한·미 대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 리더십 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부경 대를 비롯 고려대, 대전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 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제주대, 한경대, 한 국외대 등 12개 대학 25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는 하버드대를 비롯 위스콘신대, 미시간대, 조지워싱 턴대, 캘리포니아대 등 19개 대학 23명이 참가했다.

한·미 젊은이들은 5일 동안 부경대 기숙사에 서 1:1로 짝을 맞추어 한 방을 쓰면서 '한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를 주제로 원탁회의, 한국문화 특강, 기업체 탐방 등 다양한 학술 및 친선교류활동을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소찬트라 벨 씨(24·노스센트럴칼리지)는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추진력이 정말 놀랍다."면서, "서로의 문화와 학술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장진구 씨(24·연세대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0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학생회의(ISC)가 해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국제 학술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 | 목포대학교 |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지난 7월 6일 오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사범대학 대회의실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대표적인 10개 국립대학교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협약은 국내 학술교류협정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로써 목포대학교는 대학 내 단과대학별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기획과 대학원생 유치를 통해 자연과학분야 및 첨단기술분야의 국책사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과 러시아 주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공동협약을 통해 대학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목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

다. 따라서 이 협약은 양 지역의 교육 분야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및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협력 벨트를 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또한 지난 6월 29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 분관(총영사 신형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의 명문 대학인 카자흐국립대학교(총장 무타노프)와 교수, 연구원 및 학생 교환을 기반으로 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양 대학은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 금오공과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우형식)는 2011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강화한다. 이번 창업교육과정의 도입은 평소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다져온 금오공대의 의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금오공대가 개설하는 창업교육과정의 명칭은 "EnBiz 창업트랙"이며 이 명칭은 "Engineer and Business Pre-CEO Track"을 의미한다. 대학 측은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공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실천인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예비 CEO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nBiz 창업트랙"은 창업기초, 창업응용, 창업실전 등 총 16개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창업기초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등의 교과목을 통해 창업 입문에 대해 공부하고, 창업응용에서는 '창업기술경영론', '예비회사'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응용능력



을 강화하고, 창업실전에서는 'Capstone Design',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을 통하여 실전 창업 능력을 배양한다. 금오공대는 개설된 창업 트랙 중에서 9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학생들에게는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오공대는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내적으로는 대학생 취업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적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기술창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오공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하여 창업역량이 강한 공학도를 양성하는 중심대학으로 더욱 인정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원광대학교 |

원광대학교(총장 정세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대폭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학업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배경에 제약 받지 않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비장학금에 15억원 추가해 총 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학업보조장학금' 외에 차상위계층 등 가계 곤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원광나눔장학금'을 신설하여 올해 3,000여명에게 지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덕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원광대학교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해 학생들이 도의실천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인문학 장학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광우 학생복지처장은 "현재 대학의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대폭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를 기다립니다.

회원 대학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 회원대학 소식게재 신청 : [research@kcue.or.kr](mailto:research@kcue.or.kr)

기사를 보내주시면 회원대학 소식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 <http://magazine.kcue.or.kr>

대학교육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 대학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홈페이지 - '지번호 보기' 메뉴에서 지난 대학교육 원고 및 기사를 pdf와 e-book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